

# 인생 최고의 일과 무아無我

| 용타스님 |

모든 인생이 최고로 삼는 것은 행복이며, 그 행복 중 최고로 귀한 것은 해탈무아임을 역설하고 그것을 위해 혼신을 다하는 삶을 이야기합니다(편집자 주).



(지난 호에 이어서 15부)

### 067. 최고最高, 최귀最貴, 최대最大, 최종最重의 일은?

자는 수련장에서 이렇게 여러 개의 형용사를 동원하여 ‘그 일’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해서 드러내 보았다.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면 당연히 이것저것 해야 할 일이 많다. 그런데 ‘그 일’이 어떤 일이기에 그 많은 일 중에서 이토록 강조할까? 진정 최고最高, 최귀最貴, 최대最大, 최종最重이라는 수식어까지 붙여서 중요하게 여기는 일이 있다면 그 일은 무슨 일일까?

우리의 현실은 한결같이 마음의 투영投影이다. 즉 삶의 현실이란 모두 마음속에 있는 것이 밖으로 드러난 것이다. 답답하고 구겨진 현실을 살고 있다면 그 ‘답답하고 구겨진 현실’을 빚어내는 어두운 마음요소들이 마음속에 들어있는 법이다. 그렇다면 그 삶의 현실이 보다 행복하고, 보다 풍요롭기 위해서는 마음속에 ‘보다 행복하고, 보다 풍요로울 수 있는 마음 요소’들이 들어 있어야 한다. 이 말씀이 옳다면 진정 최고, 최귀, 최대, 최종의 일이란 ‘마음 속 관리를 잘 하는 것’이다. 곧 ‘마음속에 있는 어두운 마음 요소는 정화하고 행복과 풍요를 가져오는 긍정적인 마음 요소는 건립하는 것’이 최고, 최귀, 최대, 최종의 일이다. 간단하게 표현해서 ‘수심修心을 잘 할 일’이 그것이다.

수심이 진정 최고, 최귀, 최대, 최종의 일이라면 세상 사람은 당연히 수심에 마음을 기울여야 할 터인데 현실은 어떠한가? 좀 특별한 사람들이 마음공부에 다가가기도 하지만 대다수는 그러하지 못하는 것 같다. 문제는 필요성이다. 수심修心, 곧 마음공부를 해야 할 필요성을 인식해야 한다는 말이다. 세상에는 수심의 방법론은 참으로 무성茂盛하

게 많지만 수심의 필요성을 치밀하게 논의하는 일에서는 좀 게으른 듯하다. 어떤 이가 과학 선생님이라면 학생들에게 과학 지식을 열심히 가르치는 일도 중요하지만 어쩌면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과학 지식이 왜 그토록 필요한가를 깨우쳐주어야 한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가업을 이어받게 하고 싶다면 가업을 이어받아야 하는 필요성을 인식하게 해야 한다는 말이다.

나는 불교 승려로서 평생 수심修心으로 살고 있고, 30대 말부터는 수심을 안내하는 일을 해왔다. 그래서 수심의 길을 묻기에 앞서 수심에 대한 강한 동기動機 촉발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줄기차게 유념하고 있지만 아직도 기발하게 동기부여를 하지 못하여 늘 아쉬워하고 있다. 이 격월지를 통해 세상 사람의 의식意識 지평을 무한으로 열리게 할 수 있는 수심修心의 하나로 돈망頓忘이라는 방편 언저리를 꾸준히 이야기해 왔지만 지금도 어떻게 하면 수련생들이 돈망을 그리워할 수밖에 없도록 할 것인가 고심하고 있다. 필자의 경우는 ‘같은 값이면 다홍치마라고, 마음을 가지고 살 바에야 마음이 보다 평화로우면 좋을 것 아니냐!’ ‘바로 내생에 구렁이로 태어나지 않는다는 보장 없다.’ ‘수심을 하고 있지 않는 동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아라. 업을 강화하는 것으로 시간을 엮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일렀듯이 ‘현실은 마음의 투영이다. 현실이 좋으려면 마음이 좋아야 한다.’ 등등으로 스스로를 게으르지 않도록 격발시키는 정도이다. 동기 유발의 방안을 공모하는 바이니 독자 여러분들에게 마음공부 동기를 끌어올릴 수 있는 좋은 소재들이 있다면 그것을 일러주었으면 한다.

## 068. 수심修心과 고전古典

용타단상 어디에선가 독서와 사색을 강조했던 것 같다. 수심을 통해 얻고자 하는 정신적 성과를, 독서를 통해서도 상당 수준 얻을 수 있음을 독서인은 누구나 알 것이다. 또한 독서의 내용이 고전古典일 때에는 더욱 그러하다는 것도 수궁할 것이다. 독서는 사람의 의식수준을 고양시킨다. 수심의 목적도 결국은 의식 수준을 고양시키는 것이므로 독서 자체가 하나의 수심이다. 수심과 고전 독서를 이원화二元화한다고 해도 고전은 수심의 중대한 토대가 된다. 고전의 흡수는 그 자체로 상당 수준의 수심일 뿐 아니라 수심의 토대가 되는 것이다.

나는 최근에 김상근 박사의 저서 『마키아벨리』 중에서 “약자가 강자強者의 횡포橫暴에 맞서는 길은 고전으로 돌아가는 것이다”라는 아주 인상적인 구절을 읽었다. 세상에는 어디에나 약자로서는 어찌할 수 없는 강자들이 있기 마련이다. 마키아벨리가 살던 시대에도 그랬기에 지식인인 마키아벨리는 ‘약자가 절대 강자에 대응하는 길이 무엇일까’하는 화두를 던지고 이와 같은 답을 얻은 것이다. 나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역사의 국면 국면에서 절대 강자들과, 그 강자들 앞에서 어쩔 수 없이 굴욕으로 떠는 다수 약자들의 풍경이 주마등走馬燈처럼 스쳐갔다. 이 다수의 약자들은 절대 강자의 횡포에 직면하여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물론 길은 다양하게 있는 법이다. 그런데 마키아벨리는 고전으로 돌아가는 것이라 한다.

나는 문득 맥이 쭉 빠졌다. 얼마나 비겁한가? 이렇게 소극적인 태도로 물러서는 것을 대응의 길로 제시할 수 있다는 말인가? 그러나 곧 바로 번득이는 ‘아하!’가 골수로부터 치솟아 올라왔다. 고전으로 돌아감! 놀라우리만큼 완벽한, 하나의 폭군(?) 대응책, 그것은 독서요, 인문학

이다. 더구나 고전이라면 이는 인문학의 인문학이다. 물론 당면한 폭군暴君에 대응하는 방법은 다양하게 있을 수 있다. 달같이 자멸할 것을 알면서도 바위에 도전하는 것 같은 대응책을 비롯하여, 무서워 도망치는 소극적이고 비겁한 대응책까지 여러 색깔, 여러 차원의 대응책들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당면한 절대 강자를 어찌해야 하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고전으로 돌아감’은 진정 부드럽고 완벽한 대답이 될 수 있음을 깊이 수궁하였다. 고전으로 돌아감은 정답의 전부일 수도 있는 정답이다. 마키아벨리의 ‘고전으로 돌아감’이란 당면한 강자를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하는 문제의 구체적인 답도 되겠지만 이는 초超상황, 초超시대적인 대안으로도 다가왔다. 다시 말해서 범 역사의 무수한 현장에 무수히 등장할 수 있는 못 폭군, 못 강자, 못 부정부패를 이겨낼 수 있는 궁극적인 힘은 역시 다수 민중의 고양된 의식意識일 것이요, 의식수준의 고양을 위한 길은 오직이라고 할 만큼 인문학이요, ‘고전으로 돌아감’인 것이다. 곧 인문학을 공부하고 독서를 하되 고전 중심으로 하는 것이다. ‘고전으로 돌아감’이라는 마키아벨리의 말이 정확히 무슨 의미였는지는 알 수 없지만 필자에게는 그렇게 해석이 되면서 한 깨달음으로 다가왔던 것이다. 다시 강조하는 바인데, 인류 전체에게 권장해야 할 것이 한두 가지이랴만 인문학 차원의 독서, 특히 고전의 독서를 통해 의식수준을 고양시켜가는 일은 범 역사적인 운동으로 아무리 권장해도 넘치지 않을 것이다.

세상에는 수심을 위한 길들이 문화마다 다양하게 열려있지만, 여기에서 필히 부각하고 싶은 것은 고전古典들을 두루 섭렵해가는 것 자체가 수심이 될 수 있으며 고전 섭렵을 바탕한 수심이라야 믿을 수 있는 수심이 된다는 점이다. 독서는 의식을 자극하고 의식은 사색思索이라는 터널을 통과하면서 고전이라는 음식을 자양분으로 만들어 몸에 비

축한다. 이 자양분에 의해 의식은 고양되고 고양되어 비지성非知性적인 강자强者들이 할거割據할 수 없는 사회풍토를 만들어낸다. 마키아벨리는 고전들이 담고 있는 심원深遠한 뜻이 사람들의 인품人品에 스며들어가면서 세상이 어떻게 변해갈 것인가를 깊이 통찰한 것이다.

## 069. 행복론幸福論 이전以前の 행복론

자는 용타단상龍陀斷想의 독자들이 돈망頓忘이라는 초월 개념을 의식 공간에서 체험할 수 있도록 무진 애를 쓰고 있다. 돈망의 체험을 위한 첫 관문은 ‘그냥 있다’이다. 그 ‘그냥 있다’를 안내하다가 문득 한 발상發想이 잡혀왔다. 필자의 경험으로 보면 그냥 있음을 깨달음 차원으로 이해시키는 것은 쉽지 않다. 이 쉽지 않은 과정을 수없이 겪다가 ‘그냥 있음’이라 이를 때 누구나 수공할 수 있는, 사유능력이 거의 없더라도 그냥 단순하게 인식할 수 있는 의식 영역이 있음을 본 것이다. 그것은 우선 몸이다. 그냥 있을 때 그냥 있는 이 자리에 몸이 있는 것이다. 그리고 몸속에 있는 듯한 마음(정신, 혼, 의식)이다. 즉 몸과 마음, 혹은 마음과 몸이 어우러져 있는 유기체는 ‘그냥 있다’ 할 때 그냥 바로 느껴지는(의식되는) 지금 여기의 존재인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 하나 더하여 ‘마음-몸’이 바로 즉각적으로 의식하고 있는 경험영역이 있다. 즉각적인 경험영역이란 바로 눈앞에 있는 것들 혹은 바로 귀에 들리는 것들이다. ‘그냥 있음’, 혹은 ‘지금여기’할 때 다양한 환경들이 바로 즉각적으로 느껴지는 심리과정을 말한다.

자, 어떠한가? 지금 여기에서 ‘그냥 있다~~’할 때 그냥 당연하게 느껴지는 것, 누구나 그러할 것 같은 것은 <마음, 몸, 경험> 아닌가! 누구나 이 <마음-몸-경험>이라는 토대가 먼저 있고 그 위에 이것저것

더해지면서 삶이 전개되고 있지 않는가. 이에 세 가지 정도를 깊게 유념하면 좋겠다. 첫째는, 일렀듯이 <마음-몸-경험>을 묶음<sup>set</sup> 개념으로 떠올릴 일. 둘째는, 그 세 가지 각각에 대해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평가해보는 것이다. 셋째는, 그 긍정성을 느껴보면서 감사-지족<sup>知足</sup>할 일 등이다. 좀 우스운 것 같지만 주관적으로 생각할 때 ‘마음’을 돈으로 가격 매김을 해본다면 얼마나 될까? 또 몸은? 그리고 경험은? 이 세 가지를 합하여 가격 매김을 한다면 몇 천조 원이라 해야 될까, 무가보<sup>無價寶</sup>라 해야 될까? 어떤 식으로 평가하든, 중요한 점은 본인이 주관적으로 스스로를 지극히 소중하게 여겨 스스로를 궁극의 가치로 존중하는 것이다. 이 부분에 자각이 일어난 사람은 영원히 열등감으로 위축되지 않을 것이요,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다 여겨 오만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런 사람은 수미산 같은 당당함으로 임재할 것이요, 나보다 낮은 자도, 높은 자도 없이 우주적 카리스마로 서로 중중<sup>重重</sup>하게 어우러져 유유자적<sup>悠悠自適</sup>하게 살 것이다. 최소한의 소유로 무한을 누리는 자, 가히 지인<sup>至人</sup>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 070. 윤회<sup>輪廻</sup>와 무아<sup>無我</sup>

불교인이라면 대체로 무아<sup>無我</sup> 사상과 윤회<sup>輪廻</sup> 사상 사이에 어떤 모순 같은 것이 있지 않을까 하는 궁금증을 문득문득 갖게 되는 것 같다. 불교의 근본적인 사상이 무아라고 볼 때 사람이 삼세윤회를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하는 불교학자들도 있었다.

여 명의 나이든 스님들이 두 달에 한 번씩 모여서 답소를 나누는 모임이 있다. 이번 달에는 실상사에서 모임을 가졌다. 모임 자리에서 윤

회니 무아니 하는 것들을 가지고 열띤 토론이 있었다. 그 토론을 관찰하면서 이 언저리를 좀 날카롭게 정리해두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필자의 관점을 정리하여 단상斷想적으로 나누어본다.

\* 우선 내생來生이라는 것이 있는가 없는가 하는 점이다. 이 설문은 사람이 죽었을 때 천도재薦度齋 같은 것을 하는데, 천도되는 영가靈 (귀신)가 사실 있느냐 없느냐를 묻는 것이기도 하다. 이 설문에 대해서 필자는 ‘모른다’라는 입장이다. 서울 종로에 종각이 있느냐 없느냐를 물으면 그곳에 가서 종각을 본 경험이 있으면 그것이 있다고 하겠지만 가본 일이 없는 사람은 모른다고 하는 것이 가장 정직한 답일 것이다. 그래서 필자의 제 일성一聲의 답은 ‘모른다’이다. 이처럼 삶의 차원에서는 모르는 것이다.

\* 그러나 사실은 있든지 없든지 둘 중의 하나일 것이다. 그래서 있는 쪽으로 믿어지느냐 혹은 없는 쪽으로 믿어지느냐 하는 질문이 나와 법하다. 이것은 삶의 차원이 아니라 믿음 차원의 일이다. 이때 필자는 ‘있다고 믿는다’고 답한다. 이 믿음에는 하나의 전제가 있는데 나와 다른 신념을 가진 입장을 사람을 존중한다는 것이다. 있다고 해도 존중하고 없다고 해도 존중하며 없다고 믿는다 해도 존중한다. 왜 존중해야 할까? 내가 이러하듯 그는 그러할 수 있고, 내가 이렇게 생각하듯 그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세상의 속성이기 때문이다. 어찌 보면 서로 다름이 어우러지는 세상이 더 아름다울 것도 같다. 굳이 다름을 지향하고 싶지는 않지만 이미 다를 때는 어찌할 것인가. 같음을 집착하지 않고 서로 다름을 존중하면서 조화를 이루는 것이 멋진 삶의 미학美學이지 않겠는가!

아무튼 나의 경우는 사람이 죽은 다음 몸은 흩어져 사라지지만 정신적인 요소인 혼魂같은 것, 식識같은 것, 귀신鬼神이라 해도 상관없는,

사유思惟를 통해 연기무아해탈緣起無我解脫을 성취하고 이를 보다 온전히 체득體得해간다. 나아가 무한 우주에 있는 유형무형 유정무정 모든 존재들의 행복해탈과 맑고 밝은 상생기운을 위하여 이 일물-物の 전 존재 전 에너지를 기전향起傳向하면서 인연되는 이웃들도 또한 사유를 통해 연기무아해탈緣起無我解脫을 성취하도록 돕는다.

그러한 것이 없지 않을 것 같이 믿어진다.

\* 부정하는 사람에게는 그런 관점을 취하게 된 어떤 단서들이 축적되어 있을 것이고 긍정하는 나에게도 마찬가지로 긍정하는 관점을 취하게 된 단서들이 축적되어 있다. 이것들을 몇 가지 들추어보는 것도 좋겠다. 지면 관계상 간략하게 소개해 본다. 중1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다. 이곳저곳 떠돌아다니는 귀신점쟁이가 우리 집에 와서 돌아가신 어머니를 불러내는 영매 역할을 했다. 필자는 동네 아낙네들 틈바구니에 앉아 그 장면을 실감나게 지켜보았다. 열네 살 때의 그 경험을 최 로 하여 다시 두어 차례 영매 역할 현장을 지켜본 일이 있다. 이 말을 접하신 분들이 어찌 여길지 모르겠지만 그러한 경험은 아무리 세월이 지나도 나에게 귀신이 없다고는 할 수 없겠다는 신념을 흐리게 하지 않는다. 스승이신 은사스님은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선승 한분이셨지만 무수한 천도재를 모셨고, 건강이 안 좋아도, 사업이 안 된다 해도, 심지어는 가정불화가 심하다고 해도 두루 다 천도재를 기본적으로 권하셨다. 빙의憑依로 시달리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사례 경험들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심령과학 관계 책자들도 내 믿음에 크게 한 역할을 했다. 특히 『사자死者와의 대화』(원제 : The Search for Bridey Murphy)라는 책을 읽고는 더 이상 삼세유회를 부정할 수 없겠다는 마음이 확고해졌다. 이 외에도 아귀계餓鬼界나 천상계를 부정할 수는 없겠다는 단서로 제공된 사 들이 많다. 이러한 삼세유회에 대한 믿음은 급기야

나의 입산수도入山修道 단행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나의 경우, 죽음에 대한 불안이 유독 심했던 것 같다. 죽음에 대한 관심은 나뿐만 아니라 사람이면 누구나 다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인생을 아무리 찬란하게 산다 해도 단 한 번의 죽음으로 인생의 모든 것이 다 허무하게 무 저버린다고 생각하면 밑뿌리까지 억울하게 느껴지는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나아가 만일 죽음 뒤에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다는 것이 확실하다면 인생을 그렇게 심각하게 살 필요가 없다는 생각도 들었다. 즉 쇠고랑 안 차는 정도로 살면서 인생을 즐기고 살면 된다는 생각을 하기도 했다. 한편으로는 착한 사람들이 넘치는 세상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도 늘 하곤 했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도 나처럼 다음 세상이 없다면 그렇게까지 착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할 것으로 여겨졌다. 『사자와의 대화』를 읽고 더 이상 윤회를 의심할 필요는 없겠다고 생각하고 있을 무렵, 불교의 참선 수행과정에서 숙명통<sup>1)</sup>이라는 지혜가 열리면 자신의 많은 전생을 기억할 수 있다는 것을 불교경전에서 읽게 되었다. 다양한 경험과 정보를 통해 삼세윤회가 믿어졌고 선정禪定을 통해 전생을 기억할 수 있다 하니,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하는 내 길이 보였다. ‘삼세윤회가 99% 믿어지고 있으니 스스로 참선參禪을 하여 숙명통宿命通을 얻어 100% 확연히 한 다음 대윤리서大倫理書를 쓴다’고 하는 꿈을 갖게 되었다. 이 대윤리서를 읽은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다음 세상을 위해서라도 착한 삶을 살 수밖에 없게 하리라 하는 부푼 희망은 삭발위승削髮爲僧(머리를 깎고 중이 됨)을 단행하는 일에 아무런 걸림이 없게 해주었다.

---

1) 육신통(六神通：天眼通，天耳通，他心通，宿命通，神足通，漏盡通) 중 전생(前生)을 기억해내는 능력으로서 깊은 명상(冥想) 중에 드러나는 지혜

\* 삼세윤회의 믿음은 필자를 입산入山하게 하는 촉발제가 되었지만 스님이 되어 막상 불교공부를 해가면서 나의 꿈은 바뀌었다. 선정禪定을 중시하는 스승을 만남으로 인해 나의 꿈은 명득정明得定 - 명증정明增定 - 인순정印順定 - 무간정無間定 - 초선初禪 - 이선二禪 - 삼선三禪 - 사선四禪 - 공무변처정空無邊處定 - 식무변처정識無邊處定 - 무소유처정無所有處定 - 비상비비상처정非想非非想處定을 거쳐 멸진정滅盡定에 이르는 것이었고, 멸진정에 이르러 자연스럽게 삼명육통三明六通이라는 막힘없는 지혜를 얻어 무소불능無所不能의 인격자가 되는 것이었다. 이 거창한 꿈은 한동안 설레는 행복감으로 살게도 해주었지만 세월이 들어갈수록 선정禪定이 깊어지는 것이 만만한 일이 아님을 알고 심리적 스트레스가 무성하게 일게 되었고 점점 행복을 잃어가는 상황이 되었다.

그러하던 차에 마지막 단계의 꿈의 장이 열리게 되었다. 그것은 1989년부터 거의 매년 전주 화엄불교대학에서 부처님 생애 강의를 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강의 때마다 부처님 생애 중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부처님 대각大의 내용이 무엇이나 하는 문제를 초미의 관심으로 가슴 깊숙이 안으면서 보리수하 부처님의 대각 내용이 확연하게 잡혀온 것이었다. 부처님의 대각 내용을 알기 위해서는 부처님께서 대각을 성취하신 후 바로 녹야원으로 가셔서 오비구五比丘를 비롯해서 60명 아라한 제자를 6개월 정도의 시간에 생산하시고 “이 지상에는 자네들 60명과 나를 합하여 61명의 아라한이 있다!”하고 선언하신 대목을 주목하면 대각의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리고 팔정도八正道의 덕목 1번과 2번이 정견正見, 정사유正思惟라는 점도 주목하고, “처음도 중간도 끝도 이로理路 정연하게 전하라”하신 포교선언도 주목해 보면 더욱 좋다. 필자는 이런 점들을 중시하면


서 해오주의解悟主義가 내 의식에 터를 잡았다. 부처님께서서는 사유를 통해 [연기-무아-해탈]이라는 정각을 성취하시고 녹야원의 60명 제자들 또한 사유思惟를 통해 [연기-무아-해탈]을 깨닫게 하시고는 아라한阿羅漢이라는 라이선스를 내려주셨던 것이다. 이러한 해오주의解悟主義에 서게 되면 부처님의 정각正 과 녹야원의 아라한을 평생 남의 일로 건 다보고만 있어야 할 대상이 아니라 바로 나와 우리 삶의 내용으로 영입할 수 있게 된다. 이리하여 필자의 마지막 꿈은 [사유思惟를 통해 연기무아해탈緣起無我解脫을 성취하고 이를 보다 온전히 체득體得해 간다. 나아가 무한 우주에 있는 유형무형 유정무정 모든 존재들의 행복해탈과 맑고 밝은 상생기운을 위하여 이 일물一物의 전 존재 전 에 지를 기전향起傳向<sup>2)</sup>하면서 인연되는 이웃들도 또한 사유思惟를 통해 연기무아해탈緣起無我解脫을 성취하도록 돕는다.]가 되었다.

\* 윤회사상으로 인해 내 인생이 큰 영향을 입었다는 이야기가 좀 길었다. 이제 윤회와 무아의 관계를 정리해보자. 윤회 사상이 무아 사상에 어긋난다고 여기는 불교인들이 가끔 있는 것 같다. 그것은 무아를 잘 이해하지 못한 데서 일어난 착오라고 생각한다. ‘무아無我이니 윤회輪廻가 아님’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ㄴ 것 같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나 또한 그들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가 그들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다면 그들은 너무도 엉뚱한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이다. 무아란 [윤회하고 있는 그것들이 모두 다 무아]라는 것을 이르는 말이다. 곧 윤회는 현상론現象論이요 무아는 본질론本質論인 것이다. 윤회가 좁은 의미로는 ‘중생이 끊임없이 삼계육도三界六

---

2) 대상을 향하여 나의 사랑의 기운을 일으켜(起) 보내면(傳) 내 사랑의 기운을 받은 대상이 보다 긍정적인 방향으로 향상(向) .

도를 돌고 돌며 생사를 반복하는 것' 정도의 뜻이지만, 넓은 의미로는 현상계의 모든 것들이 무상無常하게 흐르고 흐르면서 윤회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 모든 윤회하는 것들이 다 무아無我인 것이요 공空인 것이다. 윤회하는 것들을 왜 무아無我 혹은 공空으로 조명照明해야 할까? 본질적 조명이라는 관점이 없으면 윤회하는 것을 실체시實體視하면서 분별分別 - 시비是非 - 집착執着으로 고통과 싸움의 늪으로 빠지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이른다면, 윤회輪廻가 옳으나 그르냐 하는 것은 종교의 과제라기보다 사실 여하를 논하는 과학의 일일 것 같다. 그리하니 이 사안은 그것에 관심이 있는 과학으로 하여금 긴 세월을 연구하며 규명하도록 맡겨두고 싶다. 그것을 다루는 과학자가 아닌 분상에서는 종교인, 특히 불교인으로서 인연 따라 있다고 믿든지 혹은 없다고 믿으면서 이 순간 무아無我를 방편으로 하여 실체實體로부터 해탈을 하면 될 일이라고 생각한다. 필자인 나는 과학적인 사실 여하는 모르는 바이나, 이런저런 경험으로 있다고 믿어진다는 것이요, 믿는 것이 나의 이 고득락離苦得樂을 위해 더 나은 것 같고, 세상 사람들도 믿는 것이 더 나은 것이라는 생각을 해왔다는 것이다. 지금은 이 순간 그냥 있음으로 무한 오케이를 누리며 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이래도 상관없고 저래도 상관없다. 긴 이야기 함께 하신 여러분들, 복 많이 받으시면 좋겠다.(다음 호에 계속) 

• 이 글은 미내사의 허락 없이 무단 전재나 재배포를 할 수 없습니다.

저자 | **용타 스님** | 1964년 청학스님을 은사로 출가, 1966년부터 1974년까지 고등학교 독일어교사로 교단에 섰으며, 1974년부터 1983년까지 20만거를 성만했다. 미국 삼보사 회주, 성륜불교문화재단 이사장, 재단법인 행복마을 이사장으로 1980년도부터 세상 사람들의 행복과 해탈을 위하여 [동사섭]이라는 마음공부 프로그램으로 32년 동안 수련회를 개최해왔다. 저서로는 『꽃, 공을 깨닫는 27가지 길』, 『마음 알기·다루기·나누기』, 『10분 해탈』 등이 있다.